

예술 부편 꿈 키우던 10대들 ‘미술 중추’가 되다



김종경 작 '산수유'

한국화과가 사라지는 현실 속 전국 예고 중 한국화과가 미술학과로 통합이나 흡수되지 않고 개설돼 운영되고 있는 곳은 광주예고가 유일하다. 구글 AI에게 물어보면 '광주예술고등학교에는 한국화과가 개설돼 운영 중이다. 광주예고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한국화 전공을 독립된 과로 유지하고 있는 학교로 알려져 있다'라고 소개한다. 많은 자료들에서 이런 사실은 포착된다. 그만큼 광주예고 한국화과는 희귀하지만 전통을 더하며 광주 한국화의 미래를 밝게 하고 있다는 반증으로 받아들여진다.

광주예고는 1983년 남도예고라는 이름으로 개교, 올해 43년을 맞았으며 한국화과는 1987년 개설 현재에 이르고 있다. 개설 40년째를 눈앞에 두고 광주예고 한국화과를 나온 졸업생들을 주축으로 하는 미술그룹이 공공미술관으로부터 단체 초대 받아 전시를 열고 있어 주목된다.

광주시립미술관 본관인 하정웅미술관(관장 변길현)이 지난 10일 개막, 오는 5월 20일까지 하정웅미술관 1~3전시실에서 '이원동근의 정원' (異源洞根의庭園)이라는 주제로 열고 있는 예맥회(회장 조선아·제11회 졸업) 초대그룹전이 그것. 출품작은 회원 28명의 28점.

주제인 '이원동근'은 하나의 교육적 뿌리에서 시작된 작가들이 각자의 독자적인 예술적 줄기를 뿜어 나가는 과정을 상징한다.

여기다 '이원'은 전통과 현대, 수묵과 채색, 재현과 추상, 평면과 공간이 교차하는 복합적 긴장 구조를 의미하며, '동근'은 이런 차이의 생명이 결국 남도 한국화의 교육적·정신적 토양에서 비록됐음을 이론적으로 환기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

이번 전시에는 제1회 졸업생들부터 제28회 졸업생들까지 망라됐다. 지난 10일 이뤄진 전시설명회 당시 제28회 졸업생 청년작가도 조회장과 함께 참여해 자리를 빛냈다.

하정웅미술관의 초대전은 예맥회같은 단체들의 발표공간을 확보하는 동시에 광주 미술단체들의 창작 역량 강화에 일조하는 한편, 미술



예맥회가 지난해 진행한 제28회 정기회원전에 함께 한 회원들.

사 전반에서 단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하나의 장치로서 가능 수행을 하는데 큰 도움이 기대되고 있다. 초대전으로 했다가 사진전시장이 폐관되면서 사진 단체를 먼저 초대할 데 이어 잠시 협업전으로 했던 명칭을 초대전으로 다시 들리면서 예맥회를 초대해 전시를 꾸미게 된 것이다. 시간이 흐르다보니 초창기 한국화 전공생들 중 이구용(전남대·제1회 졸업생) 박홍수(조선대·제1회 졸업생) 김종경(조선대·제2회 졸업생) 등 대학교수가 된 이들도 여럿 생겨났다. 그만큼 역사와 권력이 갈수록 더해간다는 반증이다.

이번 전시에는 창작현장을 등지지 않은 회원 28명의 예술가들이 각기 독창적 화업을 선보이고 있다. 이들 참여 작가는 각기 다른 시대적 감각으로 한국화의 지평을 확장해 온 가운데 이들이 축적해 온 40여년의 아카비야아발로 지역 화단 외부의 흐름에 매몰되지 않고 자생적인 생태계를 구축해 왔음을 증명하는 소중한 자산이라는 평가다.

전시에서 눈길을 붙잡는 작업 패턴은 비교적 대작들 중심으로 출품됐다는 점이다. 전시는 채색 위주의 제1갤러리 '스며드는 색의 풍경'을 비롯해 수묵 위주의 제2갤러리 '먹빛의 사유', 다른 재료들을 풀어낸 제3갤러리 '응축된 이미지의 장' 등 세 색선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전시 출품작들은 색채의 확장과 수

묵의 사유적 깊이, 매체의 경계 확장이라는 흐름 속에서 전통 채색과 수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들로, 회화는 물론 설치와 혼합 매체 작업까지 아우르면서 남도 한국화가 동시대적 언어로 변주되고 있는 양상을 제시한다.

운영팀 학예연구사(광주시립미술관)는 이번 전시에 대해 전통 채색화에서 안료야말로 대개 재현의 정교함과 장식적 완결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이해된다는 색채의 확장과 재현의 언어를 넘어 시간성과 내면성, 그리고 비가시적 사유를 드러내는 철학적 장치로 자리한다는 수묵의 사유적 깊이, 한국화가 공간과 환경으로 확장되며 새로운 조형적 가능성을 탐색한다는 매체의 경계 해체 등 세 가지 주제적 흐름 속에서 문제의식을 구체화한다는 시각이다.

조선아 회장은 이번 전시와 관련해 "예맥회는 광주예고 한국화과 졸업생들이라면 누구나 들어와 활동할 수 있다. 전국 예고 중 유일하게 한국화과가 유지되고 있는 만큼 전국에 퍼져 활동하고 있는 한국화과 출신들이 모여 초대 전시를 열고 있다는 점만으로도 큰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예맥회 정기 회원전은 오는 10월 조선대미술관에서 스무살부터 열네살을 예정하고 있다.

개막식은 18일 오후 5시 하정웅미술관 1층.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조선아 작 '기억의 처음'

하정웅미술관 초대전 '예맥회' 멤버들 출품

광주예고 한국화 출신 28명 독창적 화업·시대적 감각 축적

'이원동근의...' 5월 20일까지 '남도 한국화 계보 가치 확인'

제40회 광주연극제 폐막...극단 시민 '산불' 대상

“해방 이후 리얼리즘... 현 시대 재해석 위해 노력” 우수연기상 박경단·이승학, 신인연기상 문창주 등

극단 시민의 '산불'이 '제40회 광주연극제'에서 대상을 차지해 오는 7월 열릴 대한민국연극제에 광주를 대표해 출전한다.

사단법인 한국연극협회 광주시지회가 주최하는 '제40회 광주연극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광주연극제는 총 4개 극단이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빛고을시민문화관과 광산문화예술회관에서 경합을 벌였다.

지난 10일 연극문화공동체 DIC가 '백조의 노래'(연출 정문희, 작가 안톤체흠)를 무대에 올린 것을 시작으로, 극단 까치날의 '성(性)스러운 수다'(연출 심성일, 작가 오재호, 11일), 극단 시민의 '산불'(연출 김민호, 작가 차범석, 12일), 극단 터의 '스무살의 비망록'(연출 박규상, 작가 박규상, 13일)이 차례로 관객들과 만났다.

연극제 대상은 극단 시민의 '산불'이 차지했다. '산불'은 한국전쟁으로 인해 여성과 노인뿐

인 마을, 청년들에게 아들과 사위를 잃은 최씨와 청년단 활동을 하다 도망간 아들을 둔 양씨가 갈등을 겪으며 벌어지는 이야기다. 이데올로기 이념의 허구성, 인간의 본성 등을 사실적으로 그려냈다.

대상과 함께 연출상은 극단 시민의 김민호, 우수연기상은 극단 시민의 박경단, 극단 터의 이승학씨가 각각 수상했다. 예술상은 극단 터의 박규상(희곡), 극단 시민의 최성인(음악), 신인연기상은 극단 시민의 문창주씨가 각각 받았다.

심사는 배우 강성해(극단 앙상블 대표), 연출가 박정석(극단 바람돌 대표), 백현미 교수(전남대 국어국문학과)가 맡았다.

김민호 연출은 "목포 출신 차범석 선생님의 작품 '산불'은 해방 이후 한국 리얼리즘의 초석이라 할 수 있다. 이 작품으로 상을 받고, 지역 대표가 돼 뜻깊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산불'은 해방전후 전쟁이라는 비극 속에서 여성이 중심이 된 서사를 통해 이념보다 앞선 인간의 갈망과 상실을 직시하게 한다"며 "작품을 연출하기 위해 배우들과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만의 리얼리즘을 찾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무대를 준비하면서 상당히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덧붙였다.

행사 폐막식은 지난 14일 오후 4시 공동 미로극장1관에서 열렸다. 행사에는 박현순 한국연극협회 이사장, 이영민 한국연극협회 이사, 원광연극광주시립극단 예술감독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조선판스타 우승자 김산욱 명창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참가작 영상, 위촉식, 심사총평, 시상, 영상 시청, 폐막 선언, 기념 촬영 등 순으로 진행됐다.

1983년 시작돼 40년의 역사를 이어온 '광주연극제'는 대한민국연극제에 출전할 광주 대표 극단과 작품을 선정하는 공식 지역 예선대회다. 광주를 대표하는 프로 극단들이 참여해 작품성과 창작 역량을 겨루며 대한민국 무대를 향한 경쟁을 펼친다.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제40회 광주연극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사진은 최근 공동 미로극장1관에서 열린 폐막식에서 참가 극단과 배우들이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

겨울 끝자락 피아노 선율로 '보헤미아의 봄' 선사

시향, 20일 광주예술의전당 피아니스트 박종해 협연 무대

광주시립교향악단(상임지휘자 이병욱)은 오는 20일 오후 7시 30분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제40회 정기연주회 '보헤미아의 봄'을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보헤미아의 봄'을 주제로, 겨울의 끝자락에서 피어나는 생명력과 낭만주의 음악이 지닌 따뜻한 서정성을 음악적으로 형상화한다. 낭만주의 정제미라 불리는 차이콥스키와 드보르작의 걸작을 통해 계절의 변화와 맞물리는 드라마틱한 음악적 여정을 선사할 예정이다.

1부에서는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제1번'을 연주한다. 1악장 도입부의 강렬한 호른 선율과 피아노의 웅장한 화음은 겨울을 뚫고 솟아오르는 생명력을 상징하며, 화려한 기교와 서정성이 어우러져 압도적인 몰입감을 안겨준다. 이번 무대는 강렬한 타건과 섬세한 감수성을 겸비한 피아니스트 박종해가 협연한다. 박종해는 깊이 있는 해석과 탄탄한 테크닉을 바탕으로 작품의 구조를 명확히 드러내는 연주자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계자 안다 국제 피아노 콩쿠르 준우승, 쾨엘리바스 콩쿠르 입상 및 최연소 연주자 특별상, 나고야 국제음악콩쿠르 등 세계 유수의 콩쿠르에서 입상하며 국제 무대에서 존재감을 알렸다.

특히 협주곡 레퍼토리에서 뛰어난 음악적 집중력과 오케스트라와의 유기적인 호흡으로 호평을 받아왔으며, 낭만주의 작품에서 보여주는 깊은 서정성과 폭발적인 에너지는 그만의 강점으로 꼽힌다. 무대에서는 차이콥스키 특유의 뜨거운 정열과 낭만성을 한층 극대화한 연주를 선보일 것



으로 기대된다.

2부에서는 드보르작의 교향곡 제8번을 연주한다. 이 곡은 드보르작이 고향 보헤미아의 자연에서 받은 영감을 바탕으로 작곡한 작품으로, 그의 교향곡 중에서도 가장 독창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곡으로 평가받는다.

이 작품은 기존의 무거운 비극적 교향곡 전통에서 벗어나 체코 민속 선율을 바탕으로 한 전원적 평화로움과 희망찬 에너지를 담고 있다. 세대의 지저귀임을 연상시키는 플루트 선율 등은 '봄'의 이미지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며 밝고 생명력 넘치는 분위기를 자아낸다.

공연은 초등학교 이상 관람 가능하다. 예매는 광주예술의전당 누리집과 Yes24를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예술의전당 및 광주시립교향악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입장료는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